JDCS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 19, No. 4, pp. 673-683, Apr. 2018

미디어 이용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박 노 일[1]· 장 석 환[2] · 정 지 연[3*]
[1]차의과학대학교 의료홍보미디어학과
[2]차의과학대학교 미술치료상담심리학과
[3]홍익대학교 광고홍보학부

Media Use during the Sewol Ferry Disaster an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Nohil Park[1] · Seok-Hwan Chang[2]· JiYeon Jeong[3*]
[1]Department of Health & Strategic Communication, CHA University, Pocheon 11160, Korea
[2]Department of Art Therapy & Counseling Psychology, CHA University, Pocheon 11160, Korea
[3]School of Advertising & Public Relations, Hongik University, Sejong 30100, Korea

[요 약]

세월호 사건은 재난의 일반적인 피해 수준을 넘어 온 국민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참사이다. 이 연구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미디어 이용으로 대리된(vicarious) 재난 경험과 이용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간의 연관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세월호 사건 발생 직후인 2014년 4월 28일부터 12일 동안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과 중고등학교 학생 417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답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월호 사태 기간 중에 주요 재난 사건 뉴스정보를 접하는 채널이 소셜 미디어인 경우 신문이나 TV방송보다 더 높은 수준의 외상을 나타냈다. 또한 재난 사건 뉴스정보와 소셜 미디어 이용량이 많을수록 PTSD와 정적인 인과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 결과는 재난 사건에 대한 미디어 매개 심리적 외상 문제의 작동기제와 경험적 결과를 제시하며 후속 연구를 촉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accident of Sewol Ferry is a disaster that provoked serious mental shock to the Korean people way beyond the level of generally-perceived catastrophic aftermath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vicarious disaster experiences through media and post-traumatic stress(PTSD) symptoms of media users related to the accident. The responses of 417 people consisted of colleg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adults in a metropolitan area were collected for 12 days from the April 28, 2014 right after the acciden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level of PTSD of social media users were higher than that of traditional media (newspapers or TV news) users on the accident. Also, the amount of use of disaster news information and social media reveal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PTS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o demonstrate possible mechanisms of psychological trauma mediated by media on a disaster and its empirical data and to facilitate further research.

색인어 : 미디어 이용, 소셜 미디어, 심리적 외상, PTSD, 세월호
Key word : Media use, Social media, Psychological trauma, PTSD, Sewol Ferry

http://dx.doi.org/10.9728/dcs.2018.19.4.673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29 March 2018; **Revised** 06 April 2018
Accepted 27 April 2018

***Corresponding Author; JiYeon Jeong**
Tel: +82-2-2275-4435
E-mail: dcs@naver.com

Ⅰ. 서 론

2014년 4월 16일,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은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비극이자 국가적인 참사이다. 304명의 사망·실종자를 낳은 세월호 사건은 참사 발생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확한 침몰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세월호 사건 당시 정부의 부실한 위기대응과 소위 '사라진 대통령 7시간' 등은 취약한 국가 위기관리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1].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위기관리 무능에 대한 국민적 공분(公憤)은 재난 사태 보도에 있어서 무책임한 언론을 지탄하는(소위 언론인을 '기레기(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로 폄하하는) 여론과 함께 증폭되었다[2]. 각종 스포츠 문화 행사 또한 침울한 국민 정서를 반영하여 취소되거나 조용히 치러지는 등 역사는 세월호 사건을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크나큰 외상(trauma)을 남긴 국가적인 비극으로 기록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먼저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언론인의 저널리즘 가치 준수와 책임, 반성을 다룬 연구 군이 있다. 2014년 세월호를 다룬 언론보도가 침몰 원인 등의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주로 단편적인 흥미위주의 선정적인 보도에 치중하였음을 밝힌 연구[3]를 비롯하여, 세월호 사건에 대한 신문보도 프레임의 비대칭적 편향성을 지적한 연구[4], 정부 공직자 취재원과 익명 취재원에 의존적이었던 세월호 뉴스 프레임을 밝힌 연구[5], 세월호 뉴스 생산 과정에서 드러난 언론의 재난보도의 문제를 '세월호 언론보도 대참사'로 규정하고, 근원적인 언론의 자율 규제와 책임을 강조한 연구[2] 등이 있다. 이들 연구들은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전문직 언론의 보도 관행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두 번째는 세월호 사태를 매개하는 '미디어' 채널에 주목하여, 재난보도와 관련한 뉴스 정보 확산 채널의 역동성을 추적한 연구들이 있다. 2014년 4월 24일부터 26일 사이에 전국 표본 700명을 대상으로 세월호 사건 정보를 받아들이는 채널의 다양화를 제시한 연구[6], 세월호 사건 관련 소셜 미디어와 기성 미디어(KBS, JTBC) 사이의 의제 확산 양상을 탐색한 연구[7],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한 세월호 사건 관련 정보의 확산과 소통 문제를 제시한 연구[8]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들은 세월호 사건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전통적인 미디어 채널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운영의 주체인 소셜 미디어가 재난 정보 공유 플랫폼으로 기능하거나 쟁점 관련 의미의 틀 짓기(framing) 주체의 역할과 가능성을 제시한다.

세 번째로는 비극적인 재난 현장에 참여한 언론인의 심리적 외상에 관한 연구이다. 세월호 사건은 유가족에게 심리적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 현장을 취재한 언론인들에게도 정신적 외상을 주었다[9]. 언론인들이 세월호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외상 사건에 노출되어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 대리적(vicarious) 경험 또는 2차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증상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제는 일정 시간이 지나도 지속되었다[10]. 비교적 최근에 주목을 받은 이러한 연구들은 재난보도에 대한 언론의 책임성 문제뿐만 아니라, 언론인의 재난 현장 노출과 심리적 외상 문제를 제기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세월호 사건과 같이 재난 현장을 경험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는 비극적인 현장에서 직접 구호활동을 하거나 취재하는 언론인의 심리적 외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간접적인 외상 경험의 양상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국외 정신과학 분야의 선행연구들은 대중매체를 통한 재난 사건 노출이 외상 사건의 대리 경험 및 심각한 정신적 외상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11]-[14]. 특히 9.11 테러와 같은 비극적인 참사를 직접 경험한 사람과 TV를 통해서 간접 경험한 사람 간의 PTSD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15]는 점은 재난에 대한 미디어 매개 효과의 중요성을 방증한다.

국내의 커뮤니케이션학 차원에서 미디어 매개 외상 사건 노출에 따른 미디어 이용자의 심리적 충격에 대한 탐색은 미진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세월호 사건 당시 소셜 미디어 이용에 주목하여 세월호 사태의 심리적인 외상 영향을 경험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사건사고 관련 뉴스 정보를 습득하는 채널(신문, TV방송, 소셜 미디어)에 따라 PTSD 수준에 차이가 나는지를 탐색하고, 이어서 재난 사태 시 전체적인 뉴스 총 이용량과 소셜 미디어 이용량이 PTSD에 미치는 영향을 인구사회학적 변인(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국가적 비극인 세월호 사건 발생 직후에 기성 매스미디어의 재난보도 및 소셜 미디어를 매개로 한 정보 소비가 우리 사회에 어떠한 심리적 외상 충격으로 나타났는지를 살핌으로써 언론학과 정신건강학의 협력 지점을 찾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정신보건 취약 계층을 고려하고 재난보도에 대한 언론의 윤리와 책임 인식의 중요성을 점검하는 데 필요한 경험적인 결과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참사 상황에서 사회구성원 전체의 심리적 안녕(well-being)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정책적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미와 가치가 있는 작업이다.

Ⅱ. 이론적 논의

2-1 재난 사건 미디어 매개 경험과 PTSD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경험이나 자연재해는 정신적 외상과 신체적 장애에만 머물지 않고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16]. 외상이란 개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정적 사건을 겪은 후 경험하는 심리적 충격이다. 외상 후유증이 심하면 정신 의학적 장애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진다. 미국 정신의학회의 진단체계인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17]에 따르면, PTSD는 실제 혹은 위협적인 죽음, 중상해, 성적 침해와 같은 외상 사건에 노출된 후 고통스런 기억이나 꿈을 원치 않게 반복 경험하며, 사건 관련 단서를 접하면 심각하게 괴로워하거나 뚜렷한 생리적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또한 사건과 관련한 자극을 계속 회

피하거나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신념이나 정서를 가지게 되고, 지나친 경계, 놀람 반응, 수면 장애 등 각성과 반응성 변화 및 기능상 장애를 나타내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유형 중 일부 증상을 보이며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PTSD로 진단한다.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의 발전으로 현대인은 24시간 뉴스 정보와 연결된 삶을 산다. 불확실한 재난 위기상황에서 사람들은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해석하고자 적극적인 정보 추구 행위를 하며, 미디어에 의존적인 행동 양상을 나타낸다[18]. 대량 살상이나 자연재해 현장에 대한 미디어 매개 경험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사회적 사건은 재난 사태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PTSD를 유발한다[11]. 그러나 비극적인 재난 사태를 미디어를 통해 간접 경험함으로써 나타나는 심리적 영향의 크기에 비해, 이와 관련한 국내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반면, 국외의 정신과학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에이헌 등[14]은 9.11 테러 사건 발생 4개월 후 뉴욕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사건 직후 일주일 동안 텔레비전을 중시청한 사람들이 경시청자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PTSD 증상을 나타냈다고 보고하고 있다. 몇몇 연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9.11 테러와 같은 공격 장면을 보여주는 텔레비전 시청과 PTSD 증상의 연관성을 밝히고 있다[13], [15], [19]. 이들 연구들은 9.11 테러와 같은 국가적인 재난을 직접 경험한 사람과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한 사람이 겪는 PTSD 증상에 차이가 없다고 밝히면서, PTSD 유발에 미디어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네이더와 동료들[20]은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과 관련한 쿠웨이트 어린이의 텔레비전 시청이 PTSD 증상과 연계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오클라호마 폭발 사건의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시청한 어린이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를 나타냈으며, 외상사건과 관련이 없는 어린이들조차 TV 노출로 정서적인 충격 증상이 나타난다는 연구도 있다[21]. 이외에도 보스턴 마라톤대회 폭발 사건이나 9.11 테러 등 비극적인 사건 발생 후에 이루어진 미디어 노출과 PTSD의 연관성을 밝히는 다수의 연구 보고가 있다[14], [15], [19], [22]-[25].

국내 일부 심리학자들이 세월호 사건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건 뉴스 노출에 따른 죽음에 대한 불안의 외상 증상을 살핀 연구가 있다. 이흥표와 동료들[12]은 세월호 사태로 인한 외상 충격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이해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대중 매체를 통해 일반인에게 재현된 사건 현장의 대리 경험이 죽음에 대한 불안 증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과 인과성을 갖는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 연구는 세월호 사건 뉴스 노출을 통해 간접적인 외상 사건 경험의 심리적 충격을 살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시도로서, 관련한 후속 논의를 촉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이다. 그러나 이흥표 등[12]도 밝히고 있듯이, 이 연구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미디어 이용자의 일반적인 뉴스 이용량만을 살피고, 모바일 중심의 소셜 미디어를 통한 뉴스 정보 소비패턴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또한 재난 사건이 발생한 지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전의 뉴스 노출 정도를 회고하여 측정했다는 점도 한계이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재난 사태와 관련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은 비극적인 사건 현장을 취재한 언론인과 소방관 등 현장 실무자는 물론, 비극적인 현장을 미디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일반 대중의 심리적 충격을 입체적으로 탐색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2-2 미디어 매개 재난사건 뉴스의 간접 경험과 심리적 작동 기제

사람들은 미디어가 매개하는 재난 사건 관련 뉴스정보를 통해 간접적인 재난 경험을 한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정리해 보면, 우선 노출 빈도와 강도를 살펴볼 수 있다. 실버와 동료들[19]은 9.11 테러 사건 초기에 매일 4시간 혹은 그 이상의 생생한 텔레비전 정보에 노출된 경우 급성 스트레스 증상이 누적되어 3년여에 걸쳐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고한다. 이들은 후속 연구인 보스턴 마라톤 대회 도중 발생한 폭발사고 2주 후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사건 초기에 해당 사건에 대해 매일 6시간 이상 노출된 사람들은 폭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보다 더 큰 심리적 스트레스를 나타냈다고 밝히고 있다[24]. 즉 미디어에서 방영하는 재난 장면들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외상 사건에 직접 노출된 것과 같은, 혹은 그 이상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국내의 이흥표 등의 연구[12]에서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반복된 미디어 뉴스 노출이 죽음에 대한 불안을 활성화하여 외상 당시와 직후에 위기 경험과 심리적 외상 충격을 유발하며, 이 요인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도 세월호 사건 발생 후 첫 일주일간의 뉴스 노출 시간이 길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작동 기제는 심리적 동일시화이다. 대중 매체의 광범위한 재난 뉴스 보도가 끔직한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여 주면, 실제 발생한 지역을 넘어서 부정적 충격을 퍼뜨리는 '정서 전염(emotional contagion)'이 일어난다[26]. 미디어 시청자들이 재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보다 정서 전염에 더 취약할 수 있다[24]. 정서 전염이란 둘 이상의 사람들의 정서가 유사하게 수렴되는 현상으로 위협이나 공포 정서가 시청자들에게 퍼져 집단적으로 급성 스트레스를 일으키거나, 상당히 큰 정신적 외상 증후군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다[24]. 이흥표 등[12]도 이와 비슷한 기제로 (유)가족 유사성에 대한 지각을 제시하였다. 즉, 사람들은 세월호와 같은 비극적 사태가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지각하여 이로 인한 정서적 고통(예: 공감, 동일시, 죽음 불안, 죄책감 등)을 느끼거나, 불안 완화 기능이 손상된 사람들은 PTSD, 우울, 불안 장애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더불어 재난의 미디어 매개 경험은 신체·생리적 스트레스 활성화 메커니즘을 통해 나타난다. 비극적 사태에 대한 미디어 노출과 PTSD 증상의 신체·생리적 기제를 살핀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람들에게 정신 외상적 사건 영상을 보여 주면 PTSD와 관련된 핵심 과정인 뇌의 공포 회로를 활성화하고, 핵심 증상인 섬광기억(flashback)을 생성할 수 있음을 나타냈다. 홀만 등[24]도 사람들이 트라우마와 관련된 내용을 미디어를 통해 반복적

으로 접하게 되면 공포회로가 활성화되어 위협을 느끼고, 섬광 기억이 발달되며, 반추와 침투적 사고가 강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반추는 동일한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는 현상으로 과거의 부정적 사건에 계속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즉 미디어를 통해 재난 상황을 반복해서 접하게 되면 급성 스트레스원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게 되고, 관련 생각을 생생하게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반복 노출은 외상과 관련한 급성 스트레스 증상을 연장하거나 악화시켜 트라우마와 관련한 장애를 발달시킬 수 있다.

퇴역군인이나 난민 등을 다룬 연구들은 이전에 정신적 외상이 있는 시청자가 본 텔레비전 화면이 본래의 트라우마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시청 후 PTSD 증상이 악화된다고 보고한다. 예를 들어, PTSD 증상이 있는 캄보디아 난민들은 캄보디아 학살에 관련된 장면들을 보고 심장 박동이 가장 크게 증가했고, 한 주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심리적 괴로움을 호소하였다[27]. 한편,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미국인에 대한 연구는 그 외상을 다시 회상하게 된 경우, 본래의 외상과 유사한 미디어(TV나 영화) 현시(presentation)가 외상에 대한 기억을 촉발한다고 보고하였다. 예컨대, 9.11. 테러 등과 같은 재난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비슷한 테러의 폭력적 사건과 관련한 미디어 보도에 노출될 경우 집단적 외상에 더 치명적이다[24]. 또한 9.11 테러 이후 실시한 미국 전역에 걸친 인터넷 조사에서, TV에서 건물 공격 장면을 생방송으로 시청한 사람들은 6개월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증가하였다[19]. 다른 설명으로는 외상적 사건에 대한 TV시청이 이미 다른 원인으로 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외상 기억을 촉발하고[27], 외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외상 기억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21]. 또한 외상 증상은 1년 뒤 테러 장면에 대한 노출로 새로운 정신적 문제를 나타내는 등, 처음에는 증상이 없다가 나중에 증상이 다시 나타나는 '증상의 지연된 개시(onset)'가 가능함을 보인다[22].

한편,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세월호와 같은 비극적 사태에 대한 미디어 노출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몇 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그들은 일단 외상적 사건과 관련된 텔레비전 장면의 노출을 줄이는 것을 많은 일반인들의 외상을 유도하는 정신병리 파급 효과를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로 제안한다[22]. 즉, 사람들이 지역 혹은 국가적 재난 사건을 즉각적으로 보도하는 뉴스를 보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자제하는 것이 좋다. 뉴스 보도자도 공공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끔찍한 장면을 반복해서 보도하는 것은 사건 관련 괴로움을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직접 사건을 경험한 사람보다 급성 스트레스에 더 강하게 관련되도록 이끌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24]. 또한 전문가들은 사건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힌다[28]. 혼자서만 해결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것은 일반적인 스트레스 뿐 아니라 외상 스트레스 감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시청자들의 외상적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권한다. 이는 일부 시청자들이 회복탄력성을 보이며, 적절하게 대처한 사람들은 외상적 스트레스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23].

2-3 소셜 미디어 이용과 이용자 속성의 PTSD 영향

앞선 논의들은 미디어 매개 재난 간접 경험이 생생한 현장을 재현해 주는 미디어의 특성과 의존적 혹은 신뢰적 미디어 이용량, 재난 사건 피해자에 대한 동일시화, 이전의 재난 사건 또는 유사한 외상 경험의 유무, 사회적 지지와 관계망의 강도, 그리고 재난과 관련한 신체적인 스트레스 활성화 기제를 통해 재난 사건에 대한 심리적 외상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제시한다. 재난보도에 있어서 소셜 미디어 이용의 보편화에 비하여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재난 정보의 파급 현상을 추적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세월호에 대한 트위터와 뉴스 방송 의제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7]에서 세월호에 대한 트위터의 초기 의제들이 방송 뉴스의 중기 의제에 영향을 미쳤으며, 트위터의 의제를 반영한 뉴스 방송의 의제가 다른 방송으로 확대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한편, 트위터는 초기에만 뉴스 방송 의제에 영향을 미쳤을 뿐, 세월호 사태 이후에는 뉴스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있었다. 또한 방송보다 사회적 추모나 유가족 등 감성적인 이슈를 더 다루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소수의 쟁점을 반복적으로 다루는 경향을 보였다.

일부 선행연구들은 소셜 미디어 이용자 개개인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정보 매개와 확산을 주도하는 것은 기성 미디어의 일방향적이고 수동적인 정보 소비 패턴과 다른 방식으로 특정 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부여한다고 보고한다[29]. 또한 사회적 쟁점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 상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재구성되고 재해석되며, 이는 종종 전통적 뉴스 미디어가 사건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기도 한다. 소셜 미디어는 그 자체로도 하나의 공론의 장으로 중요한 사회 쟁점을 의제로 설정하고, 그에 대한 해석의 틀을 제공하는 독립적인 미디어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다양한 측면에 대한 균형적 보도를 추구하는 전통미디어와는 다르게 재난과 관련한 소셜 미디어 매개 커뮤니케이션은 핵심적으로 부각한 소수 의제를 중심으로 의견이 쏠리며, 그 논조 또한 사건에 대한 이성적인 조명이 아닌 감정적인 공유가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세월호 사건에 대한 트위터와 포털의 뉴스 의제를 비교 분석한 연구[30]에서는 포털 뉴스와 트위터의 의제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 트위터에서는 주류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의제들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소셜 미디어가 주류 언론에서 소극적으로 다루어지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소통의 플랫폼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세월호 사태에도 소셜 미디어가 새로운 정보채널로 기능하였다. 거친 정보를 여과 없이 공유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기성 미디어의 의제설정에 반하는 역의제설정(reverse-agenda setting) 역할을 수행한다[31].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관계 중심의 소셜 미디어를 매개로 한 재난 상황의 경험은 기성 언론과 상이한 심리적 외상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미디어를 통한 재난 사태의 대리 경험과 심리적 외상은 미디어 이용자의 개인 속성과 이용 맥락에 따라 차별적인 양

상을 나타낸다. 미디어의 영향력은 이용자가 지각하는 뉴스미디어 정보채널로서의 신뢰도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32]. 전문직 언론인이 생산하는 뉴스정보와 달리 일반인이 주체인 소셜 미디어 공간에서는 감성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정보가 쉽게 확산될 수 있다. 의견, 주장, 사고현장 관련 정보를 일단 게시하고 정제하는 과정인 '출판 후 여과모델(publish-then-filter model)'의 소셜 미디어의 속성을 고려하면[31], 재난 사태와 관련한 뉴스 정보 소비의 맥락에서 뉴스 정보 채널로서의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의존적인 이용 맥락은 소셜 미디어를 매개로 한 재난 정보 처리 과정이 전통적인 미디어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낼 것이 자명하다. 이외에 실버 등[19]은 비극적 사태에 대한 미디어의 반복적 노출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개인적 특성이 작용한다고 제안한다. 즉, 개인의 생애에 역경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나 수입이 낮을수록, 그리고 기존의 정신 건강 상태 등이 트라우마에 따르는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해로운 효과를 주는 위험 요인들이라고 제시한다.

또 다른 요인으로 휴스턴[33]은 지리적 근접성과 연령을 들고 있다. 그의 메타 연구에서 사건 장소에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의 사람들이 가까운 곳의 사람들보다 미디어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외상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예: 직접 보거나 아는 사람이 관련된 경우 등)을 많이 받지만, 먼 곳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간접적인 영향, 즉 미디어를 통해 사건을 접하므로 미디어에 더 의존하거나 더 많이 이용하게 되어 그에 따른 외상적 반응은 더 클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대학생들이 성인들보다 외상적 사건을 다룬 미디어 노출 후에 더 많은 외상 반응을 나타냈는데, 이는 외상적 경험과 인지 정보가 적은 젊은이들이 장기 기억에 성인보다 쉽게 외상 인지망을 형성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한다. 반면, 란즈 등[34]은 테러리스트의 공격과 같은 사건의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성인일수록 전쟁이나 개인적 상실을 경험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젊은이보다 PTSD 증상에 취약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개인적 특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불안 민감성(anxiety sensitivity)이 전반적인 PTSD 증상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5]. 불안 민감성이란 해로운 결과를 입을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 불안 관련 감각들에 대한 공포를 말하는데, 이러한 경향이 높은 사람들이 외상 관련 미디어를 접할 때 PTSD 증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신체 감각적 요인을 다룬 또 다른 연구에서는 교감신경계 반응성(reactivity)이 높은 청소년들이 외상 관련 미디어에 노출되면 PTSD 증상을 많이 보였다[36].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교감신경계 반응성이 낮은 청소년들도 미디어 노출 시간이 길어지면 역시 PTSD 증상이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제시한다.

개인 속성 중, PTSD에 대한 성별(gender) 차이를 고려한 연구들 중의 일부는 9.11과 같은 국가적인 테러 사건에서는 PTSD 증상의 정도에 성차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지만[15], [25], 많은 연구들은 대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외상 사건 후 PTSD 증상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한다. 즉 외상 사건 후 여성들이 건강 관련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하고[37], 여성 군인들이 남성 군인들보다 폭력적 장면에 노출 시 제반 PTSD 증상을 더 많이 보이며[38], 학령기 아동의 경우 소녀들이 소년들보다 더 많은 PTSD 증상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17년 후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39].

세월호 사태와 같이 재난 사건사고 발생 시 미디어 이용과 심리적 외상 간의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면,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외상사건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은 미디어를 매개하여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사람들은 미디어 채널의 특성에 따라 재난 사건사고를 인식하고 경험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심리적 외상도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고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재난 사태 시 여과없이 생생한 사건사고 현장을 매개하는 소셜 미디어의 이용과 전체적인 사건사고 관련 뉴스정보 이용량의 증가는 PTSD 변인에 인과적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세월호 사태와 같은 재난 사건 발생 시 뉴스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 채널유형에 따른 PTSD 차이, 뉴스정보 이용량과 소셜 미디어 이용 패턴의 심리적 충격을 공중의 정신건강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세월호 사태 시 사건사고 뉴스정보를 주로 접하는 미디어 채널인 신문, TV방송, 소셜 미디어에 따른 심리적 외상(PTSD) 수준은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연구문제 2] 세월호 사태 시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영향력을 고려한 가운데, 전체적인 뉴스정보이용량과 소셜 미디어 이용량은 심리적 외상(PTSD)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Ⅲ.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위와 같은 연구문제들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304명의 사망·실종자를 낸 세월호 사건 발생(2014년 4월 16일 08시 50분) 이후 11일이 지난 2014년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12일 동안 수도권에 소재한 중소도시의 중고등학생, 대학생(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종합사립대학 1개교)을 대상으로 강의실을 직접 찾아가 해당 기관의 협조를 받아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부터 지속적인 시신 인양 작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본 조사가 시작된 4월 28일 월요일 14시 10분경에도 단원고 남학생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추가로 수습하여 공식 사망자는 189명으로 확인된 상황이었다. 이후 본 조사가 끝나는 시점인 5월 8일 금요일 21시 27분경까지 4명의 시신을 추가로 수습하여 공식 사망자는 273명으로 확인된 상태였다[40]. 이렇듯 본 연구의 설문조사 진행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뉴스 정보가 대량으로 생산·유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대학생은 물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477부 중 불성실하게 답변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417부가 최종 분석에 반영되었다.

3-2 변인측정

1) 간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미디어 매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의 사건충격척도[10]와 정신장애진단 및 통계편람[17]에 제시된 PTSD 증상에 대한 척도를 종합하여 반영하였다. 선행연구들은 간접 외상으로 인한 이차적 외상 후 스트레스를 다음과 같은 4가지 하위 유형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사건 관련 생각이 반복적으로 떠오르거나 연상되어 고통스런 상태인 침습(intrusion), 사건 관련 장면이나 이미지 혹은 생각을 일부러 피하려는 회피(avoidance), 불면 및 과민한 반응성 변화를 보이는 각성(arousal), 외상사건 관련 인지와 감정 상태의 무기력 및 무감각 상태 등 부정적인 정신 상태로의 변화로 구성된다[11].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심리적 외상을 측정하는 질문은 '세월호에 대한 생각이나 장면이 자주 생각난다,' '세월호와 관련한 내용이 꿈에 자주 나타난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잠들기가 힘들다,' '세월호 침몰 사건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느낌이 든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뉴스만 봐도 고통스럽다,'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한 뉴스를 보면 피하고 싶다,' '요즘 삶에 대한 흥미나 의욕이 없다,' '요즘 왠지 모르게 자주 슬프다' 등 총 12개의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M(SD)$=2.820(1.117), Cronbach's α=.861).

2) 뉴스정보 미디어 채널 유형

사회의 다양한 사건사고 정보는 사람들이 주로 의존해서 이용하는 채널을 통해 전파되고 미디어 효과를 나타낸다. 세월호 당시 사람들이 어떠한 뉴스정보 채널에 주로 의존하여 정보를 받아들이는지를 신문(신문/인터넷), TV방송 및 소셜 미디어(SNS)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질문은 '귀하는 평소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건사고에 대한 소식을 다음 중 어떠한 채널을 통해 알게 되십니까?'(① TV방송 ② SNS(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③ 신문(종이신문, 인터넷 신문), ④ 기타(결측처리)로 측정하였다.

표 1. 세월호 사태 시, 뉴스정보 미디어 채널 주이용 비율
Table 1. News media use during the Sewol disaster

Variable	Category	Case(N=417)	Percent(%)
News media channel use	Newspaper	85	20.4
	TV	149	35.7
	Social media	164	39.3
	Missing	19	4.6
	Sum	417	100.0

3) 뉴스정보와 소셜 미디어 이용량 및 인구사회학적 속성

세월호 사태가 진행 중인 기간 동안 사람들의 하루 평균 전체적인 뉴스정보 이용량을 알아보기 위해 신문, 방송 및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뉴스 미디어 채널을 통한 뉴스 정보 소비시간을 30분 이하(1점)부터 30분 단위로 질문하여 3시간 이상(7점) 측정하였다($M(SD)$=2.14(1.081)). 소셜 미디어 이용량을 알아보기 위해 일일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 SNS 이용 시간을 앞선 측정 방식과 동일하게 30분 이하부터 3시간 이상까지 7점 척도 단위로 질문하여 측정하였다($M(SD)$=2.67(1.305)).

인구사회학적 속성 측정은 답변자의 성별, 연령, 학력, 월 평균 소득 수준(학생의 경우는 가구수입으로 답변)을 질문하여 조사하였다. <표 2>에 제시되어 있듯이, 인구사회학적 속성 관련 측정변인의 기초통계에 따른 남성 분포는 176명(42.2%), 여성이 241명(57.8)이었으며, 나이는 12세에서 25세까지이며 평균연령은 16.76세였다(M=16.76, SD=3.56). 본 연구의 <연구문제1> 분석을 위해 세월호 사태 당시 주요 사건사고 뉴스정보를 접하는 미디어 채널(신문, TV방송, SNS)에 따른 PTSD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는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고, <연구문제 2>를 위해서는 세월호 사태 시 전체적인 뉴스정보와 소셜 미디어 이용량의 PTSD 변인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인구사회학적 변인(남성, 중고등학생은 더미변인으로 처리)을 고려하여 살피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Variable	Category	Number of respondents	Percent(%) or Mean(M(SD))
Sex	Male	176	42.2
	Female	241	57.8
Age	Lowest	12	16.76(3.56)
	Highest	25	
Education	Under high school	182	43.6
	Under graduate	210	50.4
	Missing	25	6.0
Income (million won)	Less than 100	57	13.7
	100~less than 200	23	5.5
	200~less than 300	36	8.6
	300~less than 400	63	15.1
	400~less than 500	50	12.0
	500~less than 600	35	8.4
	600~less than 700	26	6.2
	700 or more	65	15.6
	Missing	62	14.9

Ⅳ. 연구결과

4-1 세월호 사건 시 미디어 이용 채널과 PTSD 차이

<연구문제 1>은 세월호 사태 시, 뉴스미디어 정보원으로 소셜 미디어 채널과 전통적인 신문·방송 채널에 대한 미디어 신뢰도 수준이 PTSD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뉴스정보 주이용 채널을 신문, TV방송, 소셜 미디어로 구분하여 PTSD 수준의 차이를 밝히는 일원변량분석 및 사후대비 분석결과가 <표 3>과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표 3>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세월호 사태 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미디어 채널인 신문, TV방송, 소셜 미디어에 따른 심리적 외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F(2, 394)=6.639, p<.01). 이는 앞선 이론적 논의의 틀과 흐름에 궤를 같이한 결과로 재난 사태 시 미디어 매개 경험과 심리적 외상은 사람들이 의존하는 미디어 유형이나 형식에 영향을 받음을 제시한다.

이어서 세 집단의 평균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한 사후 대비 분석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신문과 TV방송 및 TV방송과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세월호 사태를 접할 경우 미디어 채널 별 심리적 외상 수준의 통계적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신문-TV방송: t값 = -.277, p=.081; TV방송-소셜 미디어: t값= -.257, p=.243). 반면 세월호 사태 시 주요 사건사고 정보를 접하는 미디어 채널이 신문과 소셜 미디어 채널인 경우는 서로 다른 수준의 PTSD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신문: $M(SD)$ = 2.59(1.142), 소셜 미디어: $M(SD)$ = 3.21(1.033), t값 = .535, p<.001). 이러한 결과는 신문과 소셜 미디어 채널이 재난 사건 정보를 전달하는 형식적 차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세월호 사건 현장의 참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텍스트 중심의 신문보다는 TV방송과 소셜 미디어가 더 생생한 이미지와 영상을 전달하여 심리적 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3. 뉴스정보 미디어 채널 주이용 집단의 PTSD 차이분석
Table 3. Media user group differences of PTSD

Variable	Number of group	M(SD)	95% Confidence Interval for Mean Lower Bound	Upper Bound	F(df1,df2)
Newspaper	85	2.59(1.142)	2.41	2.78	6.639 (2, 394)**
TV	149	2.87(1.097)	2.70	3.04	
Social media	164	3.13(1.033)	2.91	3.35	

주. **p<.01

표 4. 뉴스정보 미디어 채널 이용집단의 PTSD 차이 사후 비교
Table 4. Post-hoc analyses for mean differences of the news media user groups

(I) Variable	(J) Variable	Mean difference(I-J)	SD	p-value
Newspaper	TV	-.277	.125	.081
	Social media	-.535**	.150	.001
TV	Newspaper	.277	.125	.081
	Social media	-.257	.147	.243
Social media	Newspaper	.535**	.150	.001
	TV	.257	.147	.243

**p<.01

4-2 뉴스정보와 소셜 미디어 이용량 및 인구사회속성의 PTSD 영향

<연구문제 2>는 세월호 사태 시 소셜 미디어 이용량이 PTSD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인구사회학적 속성을 고려한 가운데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표 5. 뉴스정보 및 소셜 미디어 이용의 PTSD 영향
Table 5. Impact of news media and social media use on PTSD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β	t-value	β	t-value	β	t-value
Male	-.206	-3.960***	-.185	-3.531***	-.154	-2.987**
Age	.031	.248	.037	.306	.080	.666
Education	-.211	-1.690	-.168	-1.345	-.193	-1.585
Income	.052	1.033	.048	.953	.065	1.329
News media use			.127	2.365*	.128	2.442*
Social media use					.223	4.361***
Sum of R^2	.127(12.534)***		.140(11.279)***		.186(13.059)***	
R^2 change			.014(5.592)*		.045(19.014)***	

주. 1. β는 표준화된 회귀계수
2. *p<.05, **p<.01, ***p<.001

이를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첫 번째 모형에 세월호 사건 관련 미디어 이용자의 인구사회학적 속성(성별, 연령, 학력, 소득)을 반영하고, 이어서 재난 사태 시 전체적인 뉴스정보 이용량을 반영한 모델을 살피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궁극적으로 살피고자 하는 재난 사태 시 소셜 미디어 이용량의 PTSD 영향 관계를 살피는 분석을 진행하였다. 학력은 성인인 대학생 집단과 중고등학생을 구분하기 위해 중고등학생을 더미변인으로 변환하여 분석에 반영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세월호 사건 시, 사건사고 관련 전체적인 뉴스정보 이용량과 인구사회학적 속성 및 소셜 미디어 이용량 변인이 PTSD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표인 <표 5>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귀분석의 첫 번째 모델1의 인구사회학적 변인군 중 성별(남성) 변인이 PTSD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남성: β=-.206, p<.001; 연령 β=.031, p=ns; 학력(중고등학생): β=-.211, p=ns; 소득: β=.052, p=ns). 첫 번째 회귀모형을 통해 세월호와 같은 재난 사건 발생 시 남성보다는 여성일수록 PTSD 증상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의 2~3번째 회귀모형을 살펴보면, 세월호 사건에서 뉴스정보 이용량이나 소셜 미디어 이용도에 상관없이 성별(여성)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미디어를 통한 재난 사건 간접경험의 심리적 외상에 취약한 인구사회집단은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2번 모형 남성: β=-.185, p<.001; 3번 모형 남성: β=-.154, p<.01). 두 번째 회귀분석 모형에서는 세월호 사태 전개 시에 사건사고 관련 총체적인 뉴스정보 이용량이 PTSD 증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뉴스정보 이용: β=.127, p<.05). 마지막으로 모델3에서는 세월호 사태 시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집단이 소셜 미디어를 어느 정도 이용하는 가에 따라 PTSD 수준이 변동하는지를 인구사회학적 속성과 전체적인 사건사고 뉴스이용량을 고려하면서 살피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구사회학적 속성과 뉴스정보 이용변인을 고려하고서도 소셜 미디어 채널 이용량의 수준은 PTSD 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23, p<.001). 이러한 분석결과는 재난 사건 관련 미디어 매개 경험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여성 집단의 취약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어느 정도의 재난 사건 관련 뉴스정보를 미디어를 통해 노출하는가에 따라서도 심리적 외상 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24]의 결과와 궤를 같이 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재난 사건 진행 기간 중에 소셜 미디어 이용량의 증가가 PTSD 증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식별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재난 사건 직접 경험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외상 수준과 미디어를 통한 간접 경험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흐름을 토대로, 세월호 사건 당시 폭주하는 세월호 참사 상황과 현장 뉴스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 채널의 차이와 이용량의 PTSD 영향을 인구사회학적 속성을 고려하여 입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월호 사건 직후 12일 동안 수도권 소재 중소도시의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수집한 417명의 답변 자료를 분석한 결과와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월호 사건 동안에 우리 사회의 주요 사건사고 정보와 소식을 접하는 미디어 채널의 형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PTSD 증상이 상이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리적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종이 및 인터넷 신문보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세월호 사태 관련 사건사고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접하는 경우 더 높은 PTSD 증상이 나타났다. 반면, 세월호 사건 관련 뉴스정보를 접하는 TV방송과 소셜 미디어 채널 간의 PTSD의 차이를 식별할 수 없었다. 이는 방송매체의 생생함과 소셜 미디어를 통한 사건현장의 전달이 외상을 야기하는 정도가 유사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이흥표와 동료들[12]이 밝힌 세월호 관련 뉴스 노출이 심리적 외상과 연관된다는 국내의 보고와 함께, 9.11테러 관련 등 다수의 국외의 재난 관련 연구[13]에서 제시한 생생한 TV재난 뉴스 정보 노출이 심리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준다는 분석 결과와 궤를 같이 한다. 즉 세월호 사건 시 재난 장면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TV방송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외상 사건에 직접 노출된 것 이상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선행연구[24]와 유사한 결과인 동시에, 소셜 미디어 채널 형식 또한 TV방송과 유사한 PTSD 증상을 가져온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세월호와 같은 재난 사건 발생 시 전체적인 뉴스정보 총 이용량과 소셜 미디어 채널에 대한 의존적인 이용량이 많아지면 심리적 외상 수준 또한 정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인구사회학적 속성을 고려하고서도 유의미한 인과적 관계를 나타낸 점은 다양한 논의거리를 제공한다. 세월호 사태와 유사한 국가적인 외상 사건 발생 시 온 국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뉴스 정보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뉴스 정보 이용량과 외상사건에 대한 간접경험 간의 인과성을 재확인한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더불어 재난 사건에 대한 간접경험의 부적 영향은 세월호 사건 당시 정제되지 않은 현장의 모습을 바로 전달하는 소셜 미디어 형식의 속성으로 더욱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재난 사건 발생 시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거친 재난 현장 상황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 연구가 밝힌 세월호 사건 발생 시 소셜 미디어 이용량과 PTSD 수준의 정적인 인과성 식별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선행연구가 밝히고 있듯이, 재난 사건 발생 시 재난 관련 뉴스정보의 노출량이 증가하면 미디어를 통한 매개경험의 결과로 이용자의 심리적 충격이 증가한다[33]. 여기에서 나아가 본 연구가 밝힌, 재난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필터링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소셜 미디어 매개 재난 경험이 PTSD 변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재난 관리 차원에서 소셜 미디어 채널의 형식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특정 미디어 채널에 의존적인 사람들이 동일한 재난 사태에서도 더 강력한 심리적 충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세월호 사건 등 재난 사태에 대한 미디어 뉴스 정보 매개에 따른 국민들의 심리적 충격은 특정 인구사회 집단에 더 강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난 사건에 대한 미디어 매개 간접 경험의 심리적 충격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일부 보고도 있지만[15], [25], 다수의 연구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심리적으로 취약성을 나타낸다고 지적한다[37]-[39]. 이러한 연구 결과와 궤를 같이 하듯이, 본 연구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이 세월호 사건 관련 미디어 매개의 심리적 스트레스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성인보다는 대학생 집단이 더 많은 심리적 외상 반응을 나타내거나[33], 다른 연구에서는 나이가 많은 성인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상실감과 연관되어 젊은이보다 PTSD 활성화가 더 강하게 일어난다고 보고하고 있다[34]. 반면 본 연구는 세월호 사태의 주요 희생자가 단원고등학교 학생이라는 점에서 대학생과 중고등학생 집단 간의 차이를 예상할 수 있었으나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재난 사건 발생 시 남성보다는 여성이 재난 사건 희생자에 대한 정서전염 및 심리적 동일시화와 불안 민감성이 높거나, 혹은 여성의 심리적 동조와 이해력이 증가되기 때문에 인구 사회 집단 중 여성일수록 외상사건에 대한 스트레스에 취약하다고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세월호 사태 등 국가적 재난 사건에서 남성보다는 여성 집단의 심리적 동일시화와 취약성을 식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난 현장의 처참한 사건사고 상황을 전달하는 TV방송과 소셜미디어 채널에 따라서도 온 국민에게 간접적인 PTSD 발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연관성과 위험성을 확인해 주었다. 나아가 세월호 사태와 같이 재난 사건 현장에 대한 총체적인 뉴스 정보 이용량이 증가하거나, 소셜 미디어와 같이 특정 채널 이용량이 많은 사람에게 PTSD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인과적 관계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재난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 실무자와 커뮤니케이션학 연구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또한 국가적인 재

난 발생 시 정신보건 취약 계층을 고려하고, 재난보도 시 미디어 채널별 정보전달 행태는 물론 TV방송사의 책임성을 점검해야 함을 제시한다. 더불어 본 연구는 재난 상황 관련 미디어 매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국민 전체의 심리적 안녕(well-being)과 충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거를 제공한다. 선행연구[24]가 제시하고 있듯이, 지역 혹은 국가적 재난 사건을 즉각적으로 보도하는 뉴스에 취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노출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뉴스 보도 또한 공중의 건강(health)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재난 사태 보도 시, 언론인의 보도 행태 및 책임, 그리고 언론의 보도 관행을 점검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즉 외상사건 발생 시 TV매체 등을 중심으로 언론의 재난보도 준칙과 저널리즘 관행 점검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먼저 재난 사건 뉴스 정보 이용자의 속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미디어 매개 재난 사건의 경험은 과거 이용자의 트라우마 경험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심리적 충격에 대한 PTSD 증상을 정밀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다. 세월호 사태 등 재난 사건에 대한 생생한 뉴스 정보 노출에 따라 인간의 인지와 정서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를 의과학적인 접근에서 입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재난 사건과 관련하여 미디어가 매개된 심리적 스트레스 연구의 중요성을 제시한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 국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관련 학회 차원에서 재난 사건 발생 직후 전국 표본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 및 미디어 매개 외상 경험의 효과를 의과학적 접근을 통해 다룬 융합연구가 추진되기를 희망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A8018450).

참고문헌

[1] E. H. Park. Korean society reflected on the 10th day of the Sewol ferry disaster [Internet]. Available: http://weekly.khan.co.kr

[2] S.-Y. Jung, “Can the disastrous results of media coverage on Sewol Ferry disaster be restored?: A theoretical exploration for paradigm shift of Journalism norms,” Communication Theories, Vol. 11, No. 2, pp. 56-103, June 2015.

[3] Y. Lim, “A study on the coverage behavior of television news on the Sewol Ferry catastrophe.”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25, No. 4, pp 179-201, October 2014.

[4] W. Lee and J. Bae, “Asymmetric bias of the Ferry Sewol accident news frame: Discriminatory aspects and interpretive of media,”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Vol. 71, pp. 274-298, June 2015.

[5] S. Song, “A study of sourcing patterns in the news coverage of the Ferry Sewol Disaster.”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 60, No. 5, pp. 34-62, 2016.

[6] C.-S. Kwak, “An evaluation of the media outlets for disaster broadcasting in the Sewol disaster,” KABS 2014 Summer Congress, Jeju National University, June 2014.

[7] S. Lee and G. Song, “Intermedia agenda-setting between social media and broadcasting news: Focusing on Sewol-ho disaster related new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 58, No. 6, pp. 7-39, 2014.

[8] C.-H. Lee, “Problems and measures to improve SNS communication through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The Korea Communications Association(KISM) 2014 Spring Congress, Seoul: Kyung Hee University, May 2015.

[9] J. K, Pae, E. H. Ha, and M. Lee, “Experiencing the Traumatic Event of Sewol Ferry for Journalist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 58, No. 5, pp. 417-445, October 2014.

[10] M. Lee, E. H. Ha, and J. K, Pae, “Psychological trauma of journalists covering the Sewol Ferry sinking: Continuation of symptoms and the risk factor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 59, No. 5, pp. 7-31, October 2015.

[11] S. H. Sohn, “Study of indirect trauma and related variables by social traumatic event to the adolescence: Focusing on the Sewol Ferry Disaster,”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1, No. 10, pp. 269-294, October 2014.

[12] H. P. Lee, Y. K. Choi, J. H. Lee, and H. S. Lee,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indirect trauma exposure through the news on the Sewol ferry disaster,” The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Vol. 22, No. 3, pp. 411-430, August 2016.

[13] J. Ahern, et al., “Television images and psychological symptoms after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Psychiatry: Interpersonal and Biological Processes, Vol. 65, No. 3, pp. 289-300. February 2002.

[14] J. Ahern, S. Galea, and D. Vlahov, “Television images and probabl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fter September 11,”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Vol. 192, No. 3, pp. 217-226. March 2004.

[15] J. Jarolmen, and H. Sisco, “Media effects 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the world trade center tragedy,” Best Practices in Mental Health, Vol. 1, No. 2, pp. 133-140, July 2005.

[16] K, Park, “A technical approach to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of the Sewol Ferry victims’ par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Vol. 5, No. 9, pp. 134-145, September 2015.

[17] D. W. Black, and J. E. Grant, DSM-5® Guidebook: The essential companion to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2014.

[18] W. T. Coombs, Ongoing crisis communication. Planing, managing, and responding,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2011.

[19] R. C. Silver, et al., "Mental- and physical-health effects of acute exposure to media images of the September 11, 2001, attacks and the Iraq War," Psychological Science, Vol. 24, No. 9, pp. 1623-1634, August 2013.

[20] K. O. Nader DSW, et al., "A preliminary study of PTSD and grief among the children of Kuwait following the Gulf crisi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32, No. 4, pp. 407-416. November, 1993.

[21] B. Pfefferbaum, et al., "Media exposure in children one hundred miles from a terrorist bombing," Annual Clinical Psychiatry, Vol. 15, No. 1, pp. 1-8. March 2003.

[22] K. T. Bernstein, et al., "Television watching and the risk of incident probabl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Vol. 195, No. 1, pp. 41-47, January 2007.

[23] V. Deroma, et al., "College students' PTSD symptoms, coping, and perceived benefits following media exposure to 9/11," Journal of College Student Psychotherapy, Vol. 18, No. 1, pp. 49-64, October 2008.

[24] E. A. Holman, D. R. Garfin, and R. C. Silver, "Media's role in broadcasting acute stress following the Boston Marathon bombings," i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ol. 111, No. 1, pp. 93-98, 2014.

[25] R. Yehuda,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Vol. 346, No. 2, pp. 108-114, 2002.

[26] S. Mineka, and R. Zinbarg, "A contemporary learning theory perspective on the etiology of anxiety disorders: It's not what you thought it was," American Psychologist, Vol. 61, No. 1, pp. 10-26, January 2006.

[27] J. D. Kinzie, J. K. Boehnlein, C. Riley, and L. Sparr, "The effects of Sepember 11 on traumatized refugees: Reactivation of posttramatic stress disorder,"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Vol. 190, No. 7, pp. 437-441, July 2002.

[28] V. Galloro, "An emotional time: Counselors say most will recover, caution their profession," Modern Healthcare, Vol. 31, No. 39, pp. 10, 2001.

[29] N. Park,. "A study on the blog users' newsmedia credibility: Focusing on comparing blogs with traditional newsmedia and the factors affecting blog credibility,"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 52, No. 3, pp. 422-439, 2008.

[30] S.-K. Kim, and E.-K. Choi, "A study on the agenda rank-order correlation between twitter and portal news about Sewol Ferry catastrophe,",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 Vol.6, No.3, pp 105-116, June 2015.

[31] N. Park, JY. Jeong, J. Lee, "Why do twitter users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self-purification of twittersphere?: Twitter users' socio-demographics, tweeting behaviors, and motivations for retweeting," Journal of Media Economics & Culture, Vol. 10. No. 3 pp. 89-128. August 2012.

[32] A. J. Flanagin, and M. J. Metzger, "Perceptions of Internet information credibility,"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Vol. 77, No. 3, pp. 515-540, September, 2000.

[33] J. B. Houston, "Media coverage of terrorism: A meta-analytic assessment of media use and posttraumatic stres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Vol. 86, no. 4, pp. 844-861, 2009.

[34] M. Lantz, and E. Buchalte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tress in old age," Geratrics, Vol. 56, No. 12, pp. 35-40, 2001.

[35] K. C. Collimore, R. E. Mccabe, R. N. Carleton, and G. J. G. Asmundson, "Media exposure and dimensions of anxiety sensitivity: Differential associations with PTSD symptom cluster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Vol. 22, No. 6, pp. 1021-1028. August 2008.

[36] D. S. Busso, K. A. McLaughlin, and M. A. Sheridan, "Media exposure and sympathetic nervous system reactivity predict PTSD symptoms after the Boston marathon bombings," Depression and Anxiety, Vol. 31, No. 7, pp. 551-558, July 2014.

[37] T. E. Galovski, et al., "Gender differences in the clinical presentation of PTSD and its concomitants in survivors of interpersonal assaul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 26, No. 4, pp. 789-806, May 2010.

[38] L. Hourani, J. Williams, R. Bray, and D. Kandel, "Gender differences in the expression of PTSD symptoms among active duty military personnel,"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Vol. 29, pp. 101-108, January 2015.

[39] B. L. Green, et al, "Children of disaster in the second decade: A 17-year follow-up of Buffalo creek survivo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Vol. 33, No. 1, pp. 71-79, February 1994.
[40] Wikipedia. Sewol Ferry sinking [Internet]. Available: ko.wikipedia.org/wiki/Sewol_Ferry_sinking.

박노일(Nohil Park)

2003년 :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론학 석사)
2009년 :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론학 박사)

2009년~2010년: Post Doc. Research Fellow in University of Missouri_Columbia
2010년~2013년: 서울디지털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부 조교수
2013년~현 재: 차의과학대학교 의료홍보미디어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공중관계(PR), 위기관리, 소셜미디어, 미디어신뢰도, VR(가상현실) 등

장석환(Seok-Hwan Chang)

2002년 : New York University 대학원 (심리학석사-산업조직심리학)
2013년 : Indiana University - Bloomington (심리학박사-상담심리학)

2012년~2013년: Centerstone of Indiana (지역주민 정신건강센터)
2014년~2015년: 연세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
2015년~현 재: 차의과학대학교 고령친화산업학과/미술치료대학원 조교수
※관심분야 : 상담심리학, 미술치료

정지연(JiYeon Jeong)

2007년 : Syracuse University (PR학석사)
2011년 : University of Missouri (저널리즘박사-PR)

2007년~2011년: Health Communication Research Center
2011년~현 재: 홍익대학교 광고홍보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 공중관계(PR), 위기관리, 공공PR 등